

김용익 단편소설의 문화번역과 자가번역에 나타난 혼종성*

한 미 애
(동국대_서울)

1. 들어가는 말

번역에는 특정 언어를 다른 언어로 해석하는 언어간 번역뿐 아니라, 동일 언어를 해석하는 언어내 번역과 언어적 기호를 비언어적 기호로 변환하는 기호간 번역도 포함된다(Jakobson 1959: 114). 이 이외에도 경험이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Nossak 1965: 228). 따라서 넓은 의미의 번역이란 무엇인가를 ‘전이하다(transfer)’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번역의 관점에서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전이’로 이해할 수 있다. 스테지(Kate Sturge)에 따르면, 문화번역은 바바(Homi Bhabha 1994)가 후기 식민주의 상황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8385).

에서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의 혼종성(hybridity)’을 은유적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점차 이 개념이 확대되어 후기 식민주의 상황 이외에도 세계화의 영향으로 교류나 이민 등의 문화적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혼합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2009: 69). 이러한 혼합, 혼종성의 맥락에서 핼(Anthony Pym)은 문화번역이란 텍스트 차원의 언어간 번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문화적 과정(cultural processes)’이라고 설명한다(2010: 144). 그러나 언어간 번역의 측면에서, 문화번역은 각각의 언어가 속하는 “문화의 차이를 중재하거나” “번역을 통해 다른 문화를 표현하려 하는 것”(Sturge 2009: 67)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티지가 언급하는 좁은 의미의 문화번역은 원천 텍스트의 문화 중 고유한 명칭이나 함축적인 표현, 관용적 표현을 도착언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의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다.

김용익(Kim Yong Ik)과 그의 단편소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화번역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김용익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창작활동을 한 1세대 한국계 미국작가라는 점에서 문화전이 즉, 넓은 의미의 문화번역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 소재인 꽃신, 동짓날, 해녀 등의 이야기를 영어로 썼다는 점에서도 문화번역을 한 작가이다. 따라서 김용익의 원천 텍스트는 문화번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목표 텍스트는 원저자가 직접 번역했다는 점에서 자가번역(self-translation)과 관련되어 있다. 즉, 김용익은 영어로 쓴 자신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가번역가이기도 하다.

김용익은 일차적으로 영어로 작품을 썼고 그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발표하였기에 원천 텍스트는 영문학에서 목표 텍스트는 국문학에서 각각 ‘아시아계 미국문학 작가’, ‘한국계 미국작가’, ‘재미한인작가’ 등으로 따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번역이나 자가번역 측면에서 김용익의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함께 연구한 적은 없다.¹⁾ 따라서 한국적 소재를 한국적 사고로 인지한 다음 영어로 창작을 한 원천 텍스트와 작가 자신이 직접 자가번역한 목표 텍스트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것[번역]은 항상 혼종적이고, 다원적”(Hermans 1996: 45)이며 이중어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자가번역가는 두 언어

1) 김민영(2010)은 김용익이 영어로 쓴 작품을 다시 한국어로 썼다고 언급하기는 하지만, 자가번역 측면보다는 서지정보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와 두 문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자가번역은 혼종성을 조장”(Nikolaou 2006: 26)할 수 있으므로 혼종성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용익 단편소설의 원천 텍스트에 나타나는 문화번역의 혼종성과 목표 텍스트에 나타나는 자가번역의 혼종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행연구와 혼종성 및 혼종적 텍스트의 개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김용익의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혼종적 특성 및 전략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영어를 한국어로 자가번역한 목표 텍스트에 나타나는 혼종적 특성 및 전략을 분석한다. 분석대상인 원천 텍스트는 Love in Winter(1969)에 실린 “The Wedding Shoes”(1956), “From Below the Bridge”(1958), “After Seventeen Years”(1963)이다. 이에 해당하는 목표 텍스트는 『꽃신: 김용익 소설집』에 실린 「꽃신」, 「변천」, 「동짓날 찾아온 사람」이다. 이 작품들은 풍부한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토속적 이미지를 영어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혼종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여 선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문화번역과 관련해서 국내 번역학계에서는 주로 문화소(cultureme)나 문화 특정항목(culture-specific item)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도훈 2006, Nam Won Jun 2008, 이승재 2012 등 다수가 있다). 문화번역을 이론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있다. 이상빈은, 문화번역은 ‘문화의 혼종을 발현시키는 담화’라는 바바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화번역이 번역학에 미치는 이론적 가치를 논의한다(2011). 또한 젠더번역과 비교하여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다(2012). 이 이외에 혼종성이나 혼종적 텍스트와 관련된 논의는 거의 없으며, 텍스트의 실제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는 아직 없다.²⁾

2) 김미현(2012)은 혼종성을 논의하기는 하지만 작가의 생각이나 이데올로기를 언어로 전이했다는, 넓은 의미의 번역 관점에서 텍스트를 분석한다. 따라서 소설의 원본만

호켄슨과 먼슨(Jan W. Hokenson & Marcella Munson)은 원저자가 자신의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므로 자가번역 텍스트는 곧 이중어 텍스트라고 하며, 이중어 글쓰기 연구가 그 동안 소홀히 되고 있는 이유를 국수주의적 단일언어 사용(nationalistic monolingualism) 때문이라고 지적한다(2007: 1-2). 이런 점에서 볼 때 자가번역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문화번역과 더불어 세계화, 탈중심주의, 다문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자가번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세 종류가 있다. 김옥동(2011)은 자가번역의 성격과 본질, 자가번역의 동기와 이유를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보면서 가능성과 한계를 이론적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있다. 자가번역의 가능성은 저자가 곧 번역가이므로, 번역가가 저자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자가번역의 한계는 번역이란 예술적인 측면도 지니지만 기술적인 측면도 지니므로 번역은 역시 전문번역가에게 맡기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자가번역을 하는 동기 중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 이외에도, “기존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형식을 다듬어 좀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려고 자기번역을 시도한다”(김옥동 2011: 31).³⁾

이형진(2010)과 전현주(2010)는 안정효의 작품 『은마는 돌아보지 않는다』(1990), Silver Stallion(1990)의 분석을 통해, 문학번역에서 중요시 여기는 충실성의 개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 작품은 원저자가 직접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대폭 삭제하거나 내용을 삽입하고 조작과 변형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문학번역을 평가할 때 충실성의 기준이 아닌 다른 평가기준이나 비평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두 연구에서는 동일한 텍스트에 대해 원고의 창작시기와 출판시기에 따라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다르게 보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형진은 창작시기를 기준으로 『은마는 돌아보지 않는다』를 원천 텍스트로, Silver Stallion을 목표 텍스트로 여기는 반면, 전현주는 출판시기를 기준으로 Silver Stallion을 원천 텍스트로, 『은마는 돌아보지 않는다』를 목표 텍스트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자가번역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안정효의 한 작품에만 그치고 있어, 자가번역에 대한 더 많은 텍스트를 분석

연구대상이며 번역본은 연구대상이 아니다.

3) 김옥동은 self-translation을 ‘자가번역’ 대신 ‘자기번역’으로 칭하고 있다.

해볼 필요가 있다.⁴⁾

2.2. 혼종성과 혼종적 텍스트

혼종성은 혼합(mixture)을 뜻하는 낱말로 생물학, 언어학, 인류학, 문화학 등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된다. 문화학 측면에서 바바(1994)는 *The Location of Culture*에서 혼종성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바바는 후기식민주의 관점으로 혼종성을 설명한다. 이전에 식민지의 피지배자였던 작가가 지배자의 언어를 사용하여 담론을 하면서 지배자의 권력과 지배문화의 내러티브를 전복시키는 것이다(Farahzad & Monfared 2010).⁵⁾ 반면 새프너와 아다브(Christina Schäffner & Beverly Adab 1997: 325, 2001: 169)는 세계화의 결과로서 유럽연맹이나 유엔 등의 문서에서 나타나는 혼종성을 설명한다. 다국적 국가의 특성을 지닌 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는 국적이 다른 여러 저자들이 영어가 모국어 가 아닌 상황에서 작성하므로, 혼종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혼종적 텍스트는 다른 문화나 언어가 접촉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혼종성은 혼질성의 개념과 비교해볼 때 혼합이라는 의미는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점이 있다. 입센(Guido Ipsen)은 문화현상의 기호작용(cultural semiosis)에서 혼종성과 혼질성의 개념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두 용어를 구별한다. 혼종성은 이질감을 통해 적용되는 과정으로, 혼종적 과정에서 복잡한 혼질성이 먼저 나타나난다. 문화의 혼질성은 문화의 동질성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한 문화 공동체는 새로운 개념을 처음에는 외래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옛 개념에 비해 이질적으로 느낀다. 이럴 경우 고유의 문화와 외래적인 문화는 여전히 구분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 공동체는 새로운 개념이나 외래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표면구조로 볼 때 어떤 요소가 본래의 문화이고 어떤 요소가 외래적 문화인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문화 기호작용 과정에서 혼종적

- 4) 국외의 경우도 최근에 이르러서야 자가번역이 번역학의 특수 분야로 연구되고 있다. 관련된 연구로는 자가번역도 원천 텍스트의 제약을 받는다고 제시한 경우(Antunes 2011), 베케트(Samuel Beckett)의 이중어 글쓰기를 논의한 경우(Sabljo 2011),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연구(Rábacov 2013) 등이 있다.
- 5) 참고한 Farahzad & Monfared의 인터넷 자료에는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인 것은 제3의 양상(mode of thirdness)이 되고 혼질적인 것은 제2의 양상(mode of secondness)이 된다.⁶⁾ 즉 입센의 견해로 보면 제2의 양상인 혼질성은 아직은 이질적이며 낮은 타자의 문화인 반면, 제3의 양상인 혼종성은 새로운 문화 형태로 수용된 것이다.

문화적 혼종성은 후기식민주의 문학이나 다문화 사회의 문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Snell-Hornby 2006: 99). 혼종성은 이전에 식민지의 피지배자에 속했던 작가가 지배자의 언어를 사용하여 쓴 문학 텍스트에서 나타난다. 이외에도 혼종성은 이민 간 작가가 새로운 문화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후 글을 쓰는 경우,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글을 쓰는 경우, 원천 텍스트와 원천 문화에 밀접하게 번역을 하는 경우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

사이먼(Sherry Simon)에 따르면, 문화적·언어적 혼종과 번역 과정은 아주 유사하다. 번역은 한 텍스트의 여러 측면을 다른 텍스트로 옮기는 것이므로, 번역된 텍스트는 두 언어 체계가 상호 침투해서 혼종적 텍스트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혼종성은 어떤 유형의 번역물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혼종적 텍스트는 ‘번역 영향(translation effects)’ 즉 부조화, 간섭, 이질적인 어휘, 결속성 결여, 비관습적 통사,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가 나타나는 텍스트이다. 번역된 텍스트는 문화가 접촉하는 지대, 즉 3의 공간(a third space)으로 이해될 수 있다(2011: 49-50). 이러한 현상은 번역투와 유사해 보이지만, 새프너와 아다브는 번역 능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번역투’ 때문에 혼종적 특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혼종적인 특성은 번역가의 의식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다(Schäffner & Adab 1997: 325).

3. 김용익의 문화번역에 나타난 혼종성

3.1. 김용익과 문화번역

김용익은 제1세대 재미교포 작가라는 점에서 문화전이 즉 문화번역을 경험한 작가이다. 김용익은 1948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영문과 소설 창작부에서 수

6) 참고한 인터넷 자료에는 연도와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학하였다. 10여 년의 유학생생활 동안 한국과는 다른 문화를 겪으면서도 한국적 이미지를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1956년에 첫 단편소설 “The Wedding Shoes”가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 지에 발행되어 미국문학계에 관심과 호응을 받게 되었다. 이 작품 이후에도 한국의 토속적 소재인 동짓날, 막걸리, 해녀, 종자돈 등을 영어로 형상화하여 창작 활동을 계속하였다. 미국 국가 문학지원금을 받으며 단편소설을 많이 발표하였는데 특히 “From Below the Bridge”는 Best American Short Stories(1958)에서 외국인이 쓴 우수 단편으로 선정되었다.

김용익은 한국적 소재를 영어로 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의미의 문화번역을 한 작가이다. 여기서 번역이란 언어간 번역이 아니라 생각을 글로 ‘전이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토속적 이미지를 영어로 집필하는 작가의 인지과정에서 문화번역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로 구상한 다음 작가의 머릿속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김용익은 김윤식과의 기획대담에서 “지금도 내면세계는 모국어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다만 창작 표현만 영어로 한 것입니다. 즉, 구상도 한국어로 하고 있는 셈이지요”(김윤식·김용익 1983: 332)라고 밝히고 있다. 작가가 한국어로 구상하고 이 구상을 영어로 옮겼다는 의미에서, 짐(Esther M. Ghymn 1992: 32, 39, 45)은 “The Wedding Shoes”를 한국어에서 번역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번역도 언어간 번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번역인 것이다. 따라서 김용익은 문화전이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토속적 소재를 한국어로 구상하고 그 내용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화번역을 한 작가이다.

3.2. 원천 텍스트의 혼종성 분석

원천 텍스트 “Wedding Shoes”, “From Below the Bridge”, “After Seventeen Years”에서는 구체적 영어 표현과 한국어식 영어 표현이 혼종적으로 나타난다. 구체적 영어 표현은 함축적인 은유보다는 직접적인 직유를 사용하고, 원천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 관련 표현을 보다 자세하고 명시적으로 묘사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한국어식 영어표현은 한국어의 관용적 표현이나 한국어 어휘를 그대로 영어로 표기한 데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글쓰기 전략은 김용익의 ‘작가

노우트’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영어로써 쓰는 글 가운데 내 자신의 한국말의 리듬을 잡으려 하고 또 동시에 모든 것을 구체적 이미지(image)로 표현함으로써 오해받을 찬스를 주지 않으려 애썼다”(김용익 1984: 288). 이러한 언급은 구체적 영어 표현과 한국어식 영어 표현을 의식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천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한 ‘구체적 이미지 표현’과 한국말의 리듬을 잡으려한 ‘한국어식 표현’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토속적 소재를 영어로 쓴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예를 각각 살펴보겠다. 원천 텍스트(ST)와 목표 텍스트(TT)를 비교 분석하되, 분석의 초점은 원천 텍스트의 혼종성이다.

3.2.1. 구체적 이미지 표현

이야기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제목, 직유적 표현, 문화 관련 표현, 명시적 표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김용익의 원천 텍스트 제목은 목표 텍스트 제목과 완전히 다르며 영어 제목이 보다 구체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중어로 글을 쓰는 자가번역가들은 두 개의 텍스트를 생산하는데, 대체로 동일한 제목으로 출판한다”(Hokenson & Munson 2007: 3)와는 다른 현상이다. 영어 텍스트와 한국어 텍스트의 제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원천 텍스트 | 목표 텍스트 |
|-----------------------|-------------|
| Wedding Shoes | 꽃신 |
| From Below the Bridge | 변천 |
| After Seventeen Years | 동짓날에 찾아온 사람 |

“The Wedding Shoes”는 이루지 못한 혼례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The Wedding Shoes’는 ‘꽃신’보다 혼례용 신발이라는 기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꽃신에 대한 이미지가 영미문화에서는 모호할 수 있으므로 원천 텍스트의 제목을 The Wedding Shoes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From Below the Bridge”는 6.25 동란 이후 세상이 달라진 모습과 피난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 다리 밑

움막집을 중심으로 잘 나타나 있다. 이 이야기의 사건 전개는 주로 다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해당되는 ‘From Below the Bridge’라는 구체적 이미지를 제목으로 택했다고 볼 수 있다. “After Seventeen Years”는 잡귀를 쫓기 위해 팔죽을 씹어먹는 동짓날, 17년 전에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난 남편이 아들의 혼례를 보기 위해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동짓날이라는 표현은 한국 문화를 나타내는 어휘이므로, 해당되는 영어 표현이 없다. 따라서 집을 나갔던 남편이 17년 후에 돌아온다는 점을 살려 ‘After Seventeen Years’를 제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원천 텍스트의 제목 이외, 구체적 이미지 표현은 직유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리원길에 따르면, 직유법과 은유법은 말하려는 내용을 보다 생동감 있고 형상적으로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그러나 직유법은 은유법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반면 은유법은 보다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수사법이다(2002: 195-196). ST에서는 은유법보다는 직유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TT에서는 은유법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ST의 표현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해당되는 예문을 살펴보자.

(예문 1)

ST: “When we were as young as green pepper days, we thought we could not marry without the shoe-maker’s silk brocade shoes. Don’t you think our children are smarter than we were? They laugh at such expensive customs and tell us to buy beef instead” (“The Wedding Shoes” 32)

TT: 『우린 풋고추 시절에는 꽃신 없이 혼인 못할 거로 알았지. 우리보다 자식놈들이 더 똑똑하다 생각지 않소? 그놈들은 돈 먹는 꽃신보다 고기를 사라하니.』 (『꽃신』 7)

(예문 1) ST의 ‘as young as green pepper days’는 TT의 ‘풋고추 시절’보다 구체적이다. ST에서는 ‘푸른 고추시절처럼 어린’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하였고 TT에서는 ‘풋고추 시절’이라는 은유법을 사용하였다. 직유법은 은유법에 비해 함축적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더 구체적이다. 또한 ‘at such

expensive customs’에서도 함축적인 은유법이 사용되지 않는 반면, TT의 ‘돈 먹는 꽃신’에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보다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구체적 이미지 표현은 (예문 2)와 (예문 3)처럼 문화 관련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원천 텍스트에서는 원천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한 생활상을 TT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한다.

(예문 2)

ST: “Is this all I carry back home after one year and one winter?” She turned and looked long at the square-framed structure of cardboard, burlap, and straw mating that had been their protection form the winter wind...

The boy, pulling his dog by the leash, dragged upward his ill-fitting shoes, the castoffs of a soldier. (“From Below the Bridge” 14)

TT: 어머니가 다리 밑 움막계를 한참 쳐다보더니 빈 두 손을 모아 쥐다.
『일년 한 겨울 살구 가는데 덜렁 옷보따리 하나이니께 구만이어...』...

누렁이 목줄을 끈 애가 앞장을 섰다. (『변천 139』)

(예문 2)에서는 부산으로 피난 와서 임시로 살던 초라한 움막집에 대한 이미지를 ST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ST에서는 전쟁 당시 다리 밑 움막집을 ‘겨울바람을 피하기 위해 마분지와 부대와 짚으로 덮은 네모난 구조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허름한 움막집에서 전쟁을 피해 초라하게 생활한 소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 ST에서는 ‘군인이 버린, 험거운 신발을 질질 끌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한국적 문화에 해당되는 한국 전쟁 당시의 모습을 영어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예문 3)에서도 나타난다.

(예문 3)

ST: Gray dusk of the winter solstice day was gently covering the valley. Scattered sounds of pounding indicated that some of the women were still mashing rice for the little balls they would serve in red bean soup. (“After Seventeen Years” 101)

TT: 지름길을 달린 해가 서산마루를 넘자 갑자기 겹겹 어둠이 내려 쌓이는 산골엔 멀리, 가까이 떡 찡는 소리가 울리고 있다. (『동짓날 찾아온 사람』 218)

(예문 3)의 ST에서는 “After Seventeen Years”라고 제목을 정했으므로, 의미가 상실된 ‘동짓날’을 본문의 첫 줄에서 ‘the winter solstice day’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짓날 팔죽에 넣을 하얀 새알심을 만들기 위해’ 쌀을 찡는 모습을 원천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구체적 이미지 표현은 (예문 4)와 (예문 5)처럼 ST와 TT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표현 방식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ST에서는 명시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TT에서는 관용어를 사용하여 함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예문 4)

ST: as he was very proud, his wife would come to us asking that we sell her hides and promising to pay the following month. (“The Wedding Shoes” 28)

TT: 코 높은 그는 오지 않고, 부인을 보내서 다음 달에 돈을 갚을 테니 쇠가죽 한 감을 팔라 했다. (『꽃신』 8)

(예문 4)에서 ST의 ‘very proud’의 표현은 TT의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 ‘코 높은’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이다. ‘코가 높다’는 자부심이 강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TT에 사용된 비유법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므로 직설법보다 간접적이고 함축적이다.

(예문 5)

ST: “What is your father doing?”

“He is a horsehair hat weaver,” the boy replied promptly.

Then the old one raised his voice. “What is he doing now to feed you and your mother?”

Again there was no answer. The old man apologized. “I did not mean

to hurt you. It is a pity that so few wear the hats nowadays.” (“From Below the Bridge” 27)

TT: 『아부지는 모얼 하노.』

『갓을 만드세유.』

『아니 뿔해서 식굴 맥여 살리노.』

영감 소리가 컸다.

대답이 또 없다.

영감은 헛기침을 쿵쿵 하더니,

『갓일이 좋은 게지. 허나 지금 사람들이 어테 갓을 쓰나. 그래서 안문 나.』 (『변천』 148)

(예문 5)의 ST와 TT를 비교해보면, ST에서는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자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사과했다’와 ‘기분을 상하게 해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로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TT에서는 ‘아니 뿔해서 식굴 맥여 살리노’라고 말한 후 대답이 없는 반응에 대해 겸연쩍은 마음을 ‘헛기침을 하다’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2.2. 한국어식 표현

원천 텍스트에서는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어휘를 그대로 영어로 표기하거나 한국어의 관용어를 일정 부분 반영하여 영어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혼종적이다. 이러한 한국어식 표현은 작가의 언급처럼 작가가 한국말의 리듬을 잡으려고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한국어 낱말이 영어로 음차번역된 형태를 살펴보자.

(예문 6)

ST: “Oma” (“From Below the Bridge” 23, 26)

TT: 『엄니』 (『변천』 145, 147)

(예문 6)의 ‘Oma’는 ‘엄마’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작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적 소재를 영어로 쓰는 과정에서 ‘엄마’라는 표현을 그대로 음차 번역하

여 한국적 리듬을 살리려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Oma’는 “From Below the Bridge”에서만 여러 번 사용되었다. 이러한 한국어식 영어표현은 마치 직역한 듯한 어색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지만 짐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평한다. “김[용익]의 한국어식 표현은 엉터리 영어(broken English) 구문으로 들리지 않는다”(Ghynn 1992: 45). 김용익은 “한국적이면서도 특별한 지역색(local color)을 더해주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점은 “한국어의 특징을 영어에 적용시키려는” 작가의 “의식적 노력”이다. 이러한 지역색은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등장인물들은 완벽한 영어보다는 한국적 표현을 사용”하여, “일부는 글자 그대로 한국어에서 번역”(38-39)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전체적으로 볼 때 김용익의 문체는 “단순하지만 우아하다”(32).

한국적 리듬을 갖추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한 음차번역은 “From Below the Bridge”에서만 발견되는 반면, 한국어의 관용적 표현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 경우는 세 텍스트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문 7)

ST: “Charging sky-high price for behind-the-time shoes! Old man, you are asleep, scratching another’s leg instead of your own itching one.”
 (“The Wedding Shoes” 43)

TT: 『퇴물인 꽃신을 가지고 하늘값을 부르니, 여보, 노인, 당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게 아니요?』 (『꽃신』 14)

(예문 7)의 ‘you are asleep, scratching another’s leg instead of your own itching one’는 한국어 관용적 표현 ‘자다가 남의 다리 긁다’와 관련 있다. 이 관용어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의미를 지녔는데, ST에서는 이 관용어에 가깝게 ‘잠들 때 자기 다리를 긁는 것 대신 다른 사람의 다리를 긁다’라고 표현했다. 이는 한국적 리듬을 갖추기 위한 작가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예문 8)

ST: If you fell on the shoemaker’s yard, your nose would hit the

butcher's house. ("The Wedding Shoes" 33)

TT: 엮어지면 코 닿을 곳에 백정네 집 (『꽃신』 7)

(예문 8)의 ST에서는 ‘아주 가깝다’라는 표현 대신 TT의 관용어 ‘엮어지면 코 닿을 곳’과 유사하게 ‘신발집에서 넘어지면, 코가 백정네 집에 닿을 것이다’라고 묘사했다. 이 표현 역시 한국어 관용적 표현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다.

(예문 9)

ST: "don't repeat that 'dog' language. What will the village people think of me, your father?" ("From Below the Bridge" 12)

TT: 『그 개 말 하지 말어.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애비 숭을 불러.』 (변천 138)

(예문 9)는 영어로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개 말 하지 말라’고 이르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개 말’은 한국어의 관용어 중 ‘개 입에서 개 말 나온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되지못한 사람의 입에서는 고운 말이 나올 수 없음을 비꼬아 이르는 말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dog' language’는 한국어식 표현을 영어로 그대로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문 10)

ST: Choon Soo interrupted Yang Ho as the shabby clothes bundle Meng Dol carried under his arm came to her mind. "I didn't invite him to unpack his story bundle" ("After seventeen Years" 105)

TT: 춘수는 명돌이가 옷보따리 끼고 온 모양을 눈앞에 떠올리고 편잔을 했다.

『뭔 얘기보따리를 풀라고 내가 자기를 오라 했나?』 (『동짓날 찾아온 사람』 222)

(예문 10)은 한국어의 관용 표현 ‘얘기보따리를 풀다’를 영어로 그대로 표

현한 예이다. ‘unpack his story bundle’은 한국어식 표현이기는 하지만 앞에 나온 ‘clothes bundle’과 ‘story bundle’이 대구를 이루어 ‘이야기를 늘어놓다’는 의미로 유추될 수 있다.

(예문 11)

ST: he told them that the man did not come as a market hanger-on but came as a relative and should be inside guest. (“After seventeen Years” 111)

TT: 그이가 장돌뱅이로 온 게 아니라 우리 먼 친척으로 온 것이니 문밖의 손님이 아니라 안손님이다. (동짓날 찾아온 사람』 226)

(예문 11)에서는 장돌뱅이에 해당하는 ‘traveling marketeer’ 대신 한국어 낱말 순서 대로 ‘market hanger-on’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초대받아서 온 손님이라는 뜻을 지닌 ‘안손님’을 한국말 표현을 그대로 살려 ‘inside guest’로 표현했다.

이상에서처럼, 원천 텍스트 “The Wedding Shoes”, “From Below the Bridge”, “After Seventeen Years”에서는 모두 구체적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과 한국말의 리듬을 잡으려한 한국식 영어 표현이 혼종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용익은 문화번역가로서 한국적 소재를 영어로 구성할 때, 수용 가능한 구체적 이미지화 전략과 한국적 리듬을 살린 전략을 동시에 활용했다. 이 세 작품은 전체적으로 이해가능 하며 원천독자들에게 수용된 텍스트이므로 혼질성을 넘어서 혼종성을 이룬 텍스트라 할 수 있겠다.

4. 김용익의 자가번역에 나타난 혼종성

4.1. 김용익과 자가번역

김용익은 문화번역을 한 작가일 뿐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직접 번역한 자

가번역가이기도 하다. “The Wedding Shoes”는 1963년에 「꽃신」이라는 제목으로 자가번역되어 현대문학을 통해 한국에도 발표되었다. 「꽃신」은 1990년 제1회 한국문학상 수상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용익이 자가번역한 작가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김용익의 단편소설집 『꽃신』은 1984년에 동아일보사에서 처음 출간되었고, 같은 제목으로 2005년 돌출새김에서 출간되었는데, 책표지에는 저자의 이름으로 김용익이 실려 있을 뿐이다. 『꽃신』의 안을 들여다보면, ‘책 머리에’에서 작가는 “영어로 쓰기 이전의 본연으로 돌아가 한국 말로 재창작한 것을 단행본으로 준비”(김용익 1984: 1)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유사한 언급을 다음과 같이 다른 출처에서도 볼 수 있다.

일단 영어로 쓴 작품은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재창조>일 것입니다. 영어 이전의 잠재적 의식이 한국어를 통해 획득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쓴 것보다 <더 보태거나 뺀 것> 그것이 한국어로 재창조한 내 작품의 의의입니다. 어떤 점이 더 보태고 또 뺀 것이냐고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하긴 어렵지요. 그러나 그 느낌은 미묘하고 다르지요. (김용익 1983: 332)

김용익의 언급한 말 “영어로 먼저 쓴 작품은 그 나름대로의 완결된 것이지만, 이를테면 ‘초벌’ 작품이라고 할까. 한국어로 ‘재창조’된 작품 쪽이 한층 심화된 것”을 근거로 해서 평론가 김윤식은 “[김용익의] 한국어 작품은 번역 문학일 수 없다”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시한다(1997: 449). 그러나 외국어로 작품을 먼저 쓰고 작가가 직접 모국어로 ‘재창조’하거나 거꾸로 모국어로 먼저 쓰고 외국어로 ‘재창조’하는 것은 자가번역의 일반적인 특징이다.⁷⁾ 따라서 김용익은 영어로 쓴 자신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가번역가이다.

4.2. 목표 텍스트의 혼종성 분석

원저자가 직접 자가번역한 목표 텍스트 「꽃신」, 「변천」, 「동짓날 찾아온 사

7) 자가번역가는 원천 텍스트에서 부족한 점을 메꾸거나 변형시켜서 번역한다는 데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Tanqueiro 1998, Nikolaou 2006, Ehrlich 2007, Grutman 2009, Vandepitte 2011, Yablokova 2012).

람]의 혼종성의 양상은 텍스트마다 다르게 분석된다. 우선 「꽃신」에서는 김용익이 언급한 것처럼 ST를 재창조하여 일부분을 보태거나 뺀 부분이 발견되면 서도 동시에 ST와 근접하게 번역하려다 발생하는 비관습적 어휘 및 통사도 발견된다. 따라서 「꽃신」은 혼종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변천」과 「동짓날 찾아온 사람」에서는 재창조를 위한 첨가 및 삭제는 많이 일어나지만 비관습적 어휘 및 통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이 두 텍스트는 혼종적인 텍스트라 할 수 없다. 이는 기존의 연구(Nikolaou 2006, Vandepitte 2011, Cordingley 2013)에서 작가번역은 일반번역보다 좀 더 두 문화와 두 언어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혼종성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ST를 재창조하기 위해 사용한 ‘첨가 및 삭제’와 2장에서 살펴본 혼종적 텍스트의 한 특징인 ‘비관습적 어휘 및 통사’로 구분하여 예를 각각 살펴보겠다.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되, 분석의 초점은 목표 텍스트의 혼종성이다.

4.2.1. 첨가 및 삭제

ST에 없는 부분이 첨가되거나 삭제된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우선 독창적인 표현이 첨가된 경우를 살펴보자.

(예문 12)

ST: Perhaps every thread of that colorful day might have moved my long-timid feet toward that house. (“The Wedding Shoes” 33)

TT: 아마도 화려한 그날을 엮을 오색무지개 가락이 오랜 세월 머뭇거렸던 내 발길을 그 집으로 돌려놓았을 게다. (「꽃신」 7)

(예문 12)의 영어 표현과 한국어 표현을 비교해보면 TT에는 독창적이고 서정적인 묘사 ‘오색무지개 가락’이 첨가되어 있다. ‘오색’은 다섯 가지 색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색찬란하다’에서 사용되는 어휘로 여러 가지 색깔을 뜻한다. 따라서 ‘오색무지개 가락’은 여러 가지 빛을 띠는 무지개와 같은 아름다운 선율이 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번역가는 목표언어가 모국어이므로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을 구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예문 1)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TT에 보다 많은 은유법이 사용된 것은, “은유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같은 인지구조, 문화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교감을 할 수 있는 언어표현”(김순미 2002: 106)이기 때문이다. 즉, 꽃신이라는 한국적 소재는 저자와 원천독자보다는 저자와 목표독자 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예문 13)과 (예문 14)는 ST에 묘사되지 않은 문화 특징적인 표현이 TT에 첨가된 경우이다.

(예문 13)

ST: The father walked out of the entrance crabwise and reached his hat before the boy could pick it up, tapped the dust from it, and by putting his hand inside, tried to round out the crushed top again. (“From Below the Bridge” 20)

TT: 아버지는 벼슬 없는 수탉같이 보인다. 상투머리를 감싸쥐고 옆걸음을 쳐서 애보다 먼저 갓 있는 데로 가 얼른 집더니 먼지를 털고 우그러진 데 손을 넣어서 편다. (변천, 143)

(예문 13)의 TT에서는 ‘상투머리를 감싸쥐고’라는 TT 문화 특징적 표현이 첨가되었고, 갓이 벗겨나간 모습을 ‘벼슬 없는 수탉같이 보인다.’로 묘사하고 있다. 작가가 영어로 글을 쓰기 이전에 떠오른 한국적 심상을 영어로 쓸 때는 생략했지만 목표언어로 자가번역할 때는 그 이미지를 자세하게 다시 묘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예문 14)의 ST에서도 ‘따뜻한 아랫목에 두고’라는 문화 특징적 표현이 없지만 TT에서는 한국식 방에 대한 묘사로 첨가되었다.

(예문 14)

ST: Had it been this man for whom at every meal time she always found herself cooking an extra bowl of rice as if he would return any moment to join them? (“After Seventeen Years” 102)

TT: 이 남자를 위해서 끼니때마다 밥 한 그릇을 더 해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 두고 곧 돌아올 사람같이 기다렸던가? (『동짓날 찾아온 사람』 219)

(예문 15)와 (예문 16)은 ST와 달리 TT에 방언이 사용된 예이다. 「꽃신」에서는 방언이 사용되어 있지 않는 반면, 「변천」과 「동짓날 찾아온 사람」의 대화 문에서는 거의 방언으로 처리되어 있다.

(예문 15)

ST: "I won't go without my dog. If he should die they would not bury him." ("From Below the Bridge" 20)

TT: 『누렁이가 못가문 난두 안 갈래유우. 저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어떡해 유우.』 (「변천」 143)

(예문 15)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나산 지방에 살던 사람이므로 대화가 보다 실제적으로 느껴지도록 방언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예문 16)

ST: "What do you want?" she said, defying her fear. "You do not need to creep behind me." ("After Seventeen Years" 101)

TT: 『뭇 때문에 사람을 따라오노? 할 말이 있으면 뜻뜻이 나와서 말해봐라.』 (「동짓날 찾아온 사람」 218)

(예문 16)의 「동짓날 찾아온 사람」은 바닷가 근처 마을이 소설의 배경이므로 이곳에 사는 등장인물들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방언이나 사투리의 구사로 텍스트에 향토성, 지역색이 더해져서 목표독자에게는 더 정겨웁게 느껴질 수 있고, 특히 TT는 번역본이라기보다는 원본과 같은 느낌을 준다.

4.2.2. 비관습적 어휘 및 통사

「꽃신」은 재창조된 부분과 더불어 비관습적 어휘 및 통사가 혼종적으로 나타나지만 「변천」과 「동짓날 찾아온 사람」에서는 ‘비관습적 어휘 및 통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예문 17)은 TT에서 어휘가 비관습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예문 17)

ST: The thatched roofs of the village glistened young and smooth, (“The Wedding Shoes” 30)

TT: 농부들이 황금빛 새 짚으로 단장한 마을 초가들은 젊고 매끄럽게 보였다. (『꽃신』 6)

(예문 17)의 TT에서 ‘젊고’가 초가집을 꾸며지는 말로 사용되어 어색하다. 영어에서는 ‘roofs are young’ 또는 ‘young roofs’가 서로 자연스럽게 호응을 이룬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초가들은 젊다’라든지 ‘젊은 초가들’은 호응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초가들은 젊고’로 번역된 것은 ST의 언어(collocation) 체계 영향 때문이다.

(예문 18)은 TT 어휘 중에서 대명사 처리가 어색한 경우이다.

(예문 18)

ST: My father did not say these things to me directly, but when I left for Pusan—a short winter’s day walking distance—he said with provocative vagueness: (“The Wedding Shoes” 41)

TT: 아버지는 내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해가 짧은 겨울에도 걸어갈 수 있는 부산을 향해 떠날 때 그는 애매하게 부채질하는 투로, (『꽃신』 13)

TT에서는 ST의 영향으로 아버지를 ‘그’라고 지칭한다. 목표 언어 관습상 아버지를 지칭할 때 ‘그’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자연스럽다.

(예문 19)는 비관습적인 통사가 사용된 예이다.

(예문 19)

ST: I might have nodded to the shoemaker’s wife. Not to the old shoemaker. Never! (“The Wedding Shoes” 30)

TT: 신집 부인이라면 인사를 했을지 모르지만 저 노인에게 내가 인사를 하다니, 결코. (『꽃신』 6)

‘never’에 해당되는 ‘결코’라는 말 앞뒤에 ‘나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가 생략되어 어색하다. 비관습적 어휘 및 통사의 예는, 자가번역가들은 원천 텍스트에 대해 “창의적으로” “변경할” 권리(Nikolaou 2006: 3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텍스트에 가깝게 번역하다보니 우리말이 다소 어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꽃신」은 ST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첨가 및 삭제되어 재창조되었으면서도 동시에 한국어의 비관습적 어휘 및 통사 사용으로 인해 ST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발견된다. 즉 「변천」과 「동짓날 찾아온 사람」과 달리 「꽃신」은 ST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재창조를 한 부분과 더불어 ST의 영향으로 다소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혼종적으로 나타났다.

5. 나오는 말

김용익이 한국적 소재를 영어로 쓴 원천 텍스트 “The Wedding Shoes”, “From Below the Bridge”, “After Seventeen Years”에서 나타난 혼종적인 특성 및 전략과 작가가 직접 번역한 목표 텍스트 「꽃신」, 「변천」, 「동짓날 찾아온 사람」에 나타난 혼종적인 특성 및 전략을 텍스트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 종류의 원천 텍스트에서는 모두 구체적 이미지를 살리려한 자연스런 영어 표현과 한국말의 리듬을 잡으려한 한국어식 영어 표현이 비교적 다채롭게 혼종적으로 나타났다. “The Wedding Shoes”에서는 구체적 이미지 표현을 위해 은유법보다는 직유법을 사용하고 함축적인 표현방식보다는 명시적인 표현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동시에 한국어말의 리듬을 잡기 위해 한국어 관용어구를 그대로 영어로 표기하거나 일정 부분 반영하여 혼종성을 이루고 있다. “From Below the Bridge”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표현을 영어로 보다 상세하게 묘사하고 명시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어 어휘나 한국어 관용어구를 살려 묘사하였다. “After Seventeen Years”에서도 장면이나 문화 관련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시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한국 문화와 관련된 표현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묘사를 하면서도 한국어 관용어를 그대로 표기하거나 일정 부분 반영하였다. 이렇듯 원천 텍스트는 구체적 이미지 표현으로 원천독

자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한국식 영어 표현으로 한국어의 리듬을 잡아 지방색을 부여한 혼종적 텍스트로 분석되었다.

목표 텍스트에서는 예상과 달리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꽃신」에서는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재창조하기 위해 원천 텍스트를 부분적으로 첨가하거나 삭제한 부분과 원천 텍스트와 근접하게 표현하려다 발생한 비관습적 어휘와 통사가 혼종적으로 존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변천」과 「동짓날 찾아온 사람」에서는 원천 텍스트와 달리 대화문에서 방언을 사용하여 원천 텍스트를 재창조한 반면 비관습적 어휘와 통사는 없어서 마치 원본처럼 느껴졌다. 결론적으로 「꽃신」은 혼종적 텍스트인 반면 「변천」, 「동짓날 찾아온 사람」은 혼종적인 텍스트가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혼종적 특성이 자가번역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다른 연구결과(Nikolaou 2006, Vandepitte 2011, Cordingley 2013)와 다른 결과이다. 즉 김용익의 경우에는 자가번역 텍스트보다는 원천 텍스트에서 혼종성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원천 텍스트가 한국적 소재를 영어로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목표 텍스트는 한국적 소재를 한국어로 자가번역 하였기에 한국적 소재를 영어로 쓴 원천 텍스트보다는 혼종성이 적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혼종성은 이야기의 문화적 소재와 그 소재를 표현하는 언어와 상관성이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도훈 (2006) 「문화소 번역에서의 인지적 축적물의 역할 및 번역전략」, 『통역과 번역』 8(2): 3-29.
- 김미현 (2012) 「황석영 소설의 ‘한국’ 번역과 혼종성: 『손님』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43: 41-70
- 김민영 (2011) 『김용익 문학의 서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순미 (2002) 「영한번역에서의 은유법 연구」, 『번역학연구』 3(2): 81-112.
- 김용익 (2005) 『꽃신: 김용익 소설집』, 서울: 돌출새김.
- 김육동 (2011) 「자기번역의 가능성과 한계」, 『통번역학연구』 16(1): 21-37.

- 김윤식·김용익 (1983) 「기획대담: 나의 문학, 나의 소설기법 -<아시> 작품과 재창조의 문제」, 『현대문학』 10(346): 324-33.
- 김윤식 (1997) 「초벌과 재창조의 실험에 대하여」, 『작가연구』 3: 45-67.
- 리원길 (2002) 『한국어 표현방식의 체계』, 서울: 일월서각.
- 이상빈 (2011)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에 관한 이론적 고찰: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3(2): 93-108.
- _____ (2012) 「문화번역과 젠더번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6: 3.
- 이승재 (2012) 「문화충위와 문화소: 번역에 대한 문화적 접근」, 『번역학연구』 13(1): 137-66.
- 이형진 (2011) 「안정효의 Silver Stallion에 나타나는 자가번역(self-translation) 가능성과 한계 연구」, 『비교문학』 53: 251-85.
- 전현주 (2010) 「자가번역(self-translation) 비평 -안정효의 『은마(銀馬)는 오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197-223.
- Antunes, Maria Alice G. (2011) 'Self Translation: A History of Practices and of Research Practice,' <http://www.llc.manchester.ac.uk/ctis/activities/conferences/researchmodels2/papers/fileuploadmax10mb,179102,en.pdf>.
- Cordingley, Anthony (2013) 'Introduction: Self-translation, going global,' in Anthony Cordingley (ed.) *Self-Translation: Brokering Originality in Hybrid Culture*, Bloomsbury Academic, 1-10.
- Ehrlich, Shlomit (2007) *The Status and Production of Self-Translated Texts: Afrikaans-English as a Case in Point*, the Master's degree, Bar-Ilan University.
- Farahzad, Farzaneh & Monfared, Bahareh Ghanbari (2010) 'Hybridity in Immigration Literature and Translated,' <http://www.translationdirectory.com/articles/article2277.php>.
- Ghymn, Esther Mikyung (1992) *The Shapes and Styles of Asian American Prose Fiction*, New York: P. Lang, 29-45.
- Grutman, Rainier (2009) 'Self-translation,'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57-60.

- Hermans, Theo (1996) 'The Translator's Voice in Translated Narrative,' *Target* 8(1): 23-48.
- Hokenson, Jan Walsh & Munson, Marcella (2007) *The Bilingual Text: History and Theory of Literary Self-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 Ipsen, Guido 'Hybridity and Heterogeneity: The Balance of Interpretation,' <http://www.library.utoronto.ca/see/SEED/Vol4-3/Ipsen.htm>.
- Jakobson, Roman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Lawrence Venuti (2000)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13-18.
- Kim, Yong Ik (1969) *Love in Winter*, New York: Doubleday & Co.
- Nam, Won Jun (2008) 'How Students Translate Culture-specific Items: An Analysis of Student Translations & Suggestions for Improvement,' 『번역학연구』 9(3): 151-75.
- Nikolaou, Paschalis (2006) 'Notes on Translating the Self,' in Eugenia Loffredo et al. (eds.) *Translation and Creativity*, London & New York: Continuum, 19-32.
- Nossak, Hans Erich (1992) 'Translating and Being Translating,' in Rainer Schulte & John Biguenet (eds.)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228-38.
- Pym, Anthony (2010) *Exploring Translation Theor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abljo, Mirna Sindičić (2011) 'Beckett's Bilingualism, Self-translation and the Translation of His Texts into the Croatian Language,' *The Journal of Linguistic and Intercultural Education* 1(4): 163-80.
- Schäffner, Christina & Adab, Beverly (1997)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Contact as Conflict,' in Mary Snell-Hornby et al. (eds.)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325-37.
- _____ (2001) 'The Idea of the Hybrid Text in Translation: Contact as Conflict,'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2(2): 167-80.

- Simon, Sherry (2011) 'Hybridity and Translation,' in Yves Gambier et al.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2,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49-53.
- Snell-Hornb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turge, Kate (2009) 'Cultural Translation,' in Mona Baker and Saldanha Gabriel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67-70.
- Tanqueiro, Helena (1998) 'Self-Translation as an Extreme Case of the Author-Translator-Dialectic,' Allison Beeby et al. (eds.) *Investigating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55-64.
- Vandepitte, Sonia (2011) 'Paul Verhaeghen's Own Voice in Omega Minor: a Comparative Study of Source Text, Trial Translation and Self-Translation,' *Humanities & Social Sciences* 10: 1481-94.

[Abstract]

Hybridity in the Cultural Translation and Self-translation of Kim Yong Ik's Works

Han, Miae

(Dongguk University_Seoul)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ybrid strategies and features in the cultural translation and self-translation of the works of a Korean-American writer Kim Yong Ik. The analysis texts are “The Wedding Shoes” (1956), “From Below the Bridge” (1958) and “After Seventeen Years” (1963), and their respective target texts, “꽃신,” “변천,” and “동짓날 찾아온 사람.” The source texts in English are short stories about Korean traditional materials and culture, and the target texts in Korean are ones that the author translates himself.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 three source texts are considered as hybrid texts, in that there are “concrete expressions of images” and “Korean rhythmical expressions” in them at the same time. On the other hand, the three target texts have different aspects. “꽃신” can be seen as a hybrid text, since it has creativity in terms that it has the addition and deletion of words compared with the source text and at the same time there are unconventional expressions and syntactics in the text. But “변천” and “동짓날 찾아온 사람” can not be hybrid texts, for they are creative in that the dialogues of characters consist of dialect, unlike those of the source texts, but they don't have unconventional words and syntactics. It is why these two translated texts feel as if they were originals.

In the case of Kim Yong Ik, the source texts are more hybrid than the self-translated target texts. It is because Korean materials and cultures are narrated in English in the source texts.

▶ Key Words: Kim Yong Ik, cultural translation, self-translation, hybridity, hybrid text

한미애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강사

hanmarian@dongguk.edu.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비평,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4년 8월 3일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15일